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圖書館學科

卒業生 및 그 論文概要



卒業生	指導教授	論文題目
1. 나 자 윤	이 봉 순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Record Library 發展을 爲한 하나의 試案
2. 이 영 식	장 일 세	國民學校 圖書室의 主題名 標目表
3. 고 후 석	장 일 세	韓國圖書館關係 文獻目錄
4. 정 영 아	장 일 세	우리나라 辭典小考
5. 이 응 숙	이 봉 순	國民學校 圖書館을 中心으로한 兒童讀書 指導
6. 김 현 기	이 봉 순	世宗朝의 文獻考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Record Library 發展을 爲한 하나의 試案

도서관학과 나 자 윤
지도교수 이 봉 순

現代社會는 어디까지나 Mechanics의 支配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機械文明이 生産한 視聽覺 資料 卽 寫眞, 各種 圖示物, radio, film, tape disk recorder, slide, motion picture, television等은 現代教育을 이룩하는데 없지 못할 教育資料가 되었다. 그 중에서 record는 從來의 disk record 이외에 새로 나온 magnetic tape record의 普及, 利用의 簡便性, 各種 教材 製作의 包括性等으로 말미암아 그 價値가 漸次로 認定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새 時代의 大學圖書館은 이러한 教育資料를 計劃的으로 蒐集하고 編輯하여 整理 保管 하여야 한다. 不幸히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은 이런 非圖書資料에 對하여 尠혀 關心이 없으며 또 教育的인 必要性에 對한 研究조차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筆者는 이런 大學圖書館의 결함을 認識하고 視聽覺資料中 特히 record 및 tape의 必要性和 學習過程에 어떠한 教育的 價値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利用하므로써

그 效果를 올릴 수 있는가를 다루어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資料를 圖書館이 어떻게 整理, 保管, 管理하므로써 教授나 學生 研究者들에게 각기 그 目的에 따라 迅速, 有効하게 活用될 수 있는가에 對한 研究를 試圖하였다. Record 및 tape의 物理施設을 爲한 record, 錄音機, 人員, 整理部分에서는 選擇, 受入, 目錄, Conventional title, 分類, 保管法, 貸出, 管理等을 다루어 하나의 Record Library의 發展을 爲한 試案에 그쳤다.

그러하여 圖書館에 關係하는 동료에게나 이 方面에 많은 關心을 가진 사람들에게 刺戟을 주어 Record Library의 研究者와 좋은 意見과 많은 活動이 있도록 이를 獎勵하는 意味에서 이를 다루었다.

結論으로는 이러한 Record 및 tape가 教育을 目的으로 利用되기 爲하여서는 大學當局의 視聽覺教育 center의 設置와 視聽覺教育에 關한 關心을 환기 시키도록 提言하였다.

국민학교 도서관실의 주제명 표목표

도서관학과 이 영 석
지도교수 장 일 세

우리나라 도서관 실정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 형편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발전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좀더 이들이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수있게끔 도서관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시절부터 제대로 도서관 이용법을 지도 하는 동시에 사서교사가 아동 도서관실의 운영과 정비면에서 가장 필요로하는 주제명에 대하여 연구 하므로써 어린이들과 사서교사에게 편의를 주는 동시에 이 주제명 표목을 활용할수 있도록 마련해 보았다.

국민학교 도서관실은 반드시 주제명 목록이 마련 되어야만 자료의 이용이 더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 도서관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표를 만들어보았다. 그러므로 이 주제명 목록표는 어떤 주제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 또는 독

자나 도서관원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원하는 도서나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참고 aid라고 생각한다. 이 주제명 목록의 특징으로는 한 주제에 관한 도서자료는 그 주제를 나타내는 명사로서 직접 찾을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식물에 대하여 쓴 책은 식물에 보면 그 주제에 관한 자료는 저자나 서명을 모르는 한이 있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이와같이 쉬운 방법을 어린이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주제명 표목표를 시도해 보았다.

그러므로 주제명 표목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국민학교 교육이 의무 교육인만큼 그 학습 목적은 국민으로서의 기초적이며 필요한 상식이 되는 것을 가르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주제명 표목표에는 전문적인 용어 또는 어려운 낱말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주로 국민학교의 각 교과서에서 나타난 낱말들을 위주로 표목표를 구성하였다.

한국 도서관 관계 문헌 목록

도서관학과 고 후 석
지도교수 장 일 세

本目錄은 1921년부터 1945년까지 其間 우리나라에서 發刊된 新聞, 雜誌 가운데서 圖書館에 關한 各種 研究, 調查, 報

告, 一般記事 및 그밖의 圖書館學 研究에 도움이 될만한 事項을 추려내어 收錄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전 소고

도서관학과 정 영 아
지도교수 장 일 세

圖書館業務中 가장 重要한 分野를 차지하고 있는 參考事務에 中心이 되고 基礎가 되는 辭典의 發達을 究明하는 것도 重要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試圖하여 보았다.

韓國에 있어서 辭典의 發達을 回顧하여 보면 오랜 세월을 두고 漢字만이 正格의 文字이었으므로 李朝時代까지는 韻書玉篇과 같은 漢字辭典만이 出刊되었었다. 그後 外國人들의 韓國語에 對한 關心과 文化交流의 關點에서 韓國語의 必要性을 痛탄하여 不完全하나마 그들의 힘으로 韓國語辭典을 編纂케 된것이 現代國語 辭典의 嚆矢가 되었고 또 그들의 影響으로 비로서 韓國人에 依한 辭典이 極히 最近에야 出現하게 된 것이다.

本 論文은 李朝以來 韻書, 玉篇, 辭典

을 整理하여 國語辭典이 編纂되기까지 우리나라 辭典 發達의 系統을 研究하여 보려는 意圖下에서 世宗大王의 訓民正音制定 以後 韓國字音을 使用하여 中國韻書를 整理한 東國正韻系, 韓國人에 依하여 編纂되었으나 中國音을 그대로 使用한 三韻通考系, 韻書, 中國音과 韓國音을 並用한 諸 韻書의 發展과 이와 併行하여 使用되어 온 字書系의 變遷過程及 十八世紀에 이르러 外國人宣教師들에 依하여 著述된 英韓, 露韓, 韓佛, 羅韓, 辭典등의 編纂經緯를 時代의 으로 區分하여 簡略히 考察해 보는 한편 各時代마다 辭典發達에 貢獻을 하였다고 생각되는 字書, 韻書, 外國語辭典, 國語辭典을 解題하여 그들의 編纂動機, 目的, 體裁, 內容分類等を 검토하였다.

국민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아동 독서지도

도서관학과 이 응 숙
지도교수 이 봉 순

국민학교 도서관 사서교사의 입장에서 독서지도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국민학교 아동의 독서지도란 곧 아동들의 인격 형성의 지도를 의미한다. 그들에겐 판단의 능력이 없으므로 독서생활을 한낱 습

관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成人이 된 후에 비로소 나쁜 습관을 고치기는 어려운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어린이들의 욕구를 만족시킬만한 良書로서 그들에게 권할 책이 많

梨大圖書館學碩士學位論文概要

지도 못하다. 그 반면에 길거리에는 화려하게 꾸며진 종이 못한 책들이 어린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있는 오늘날 어린이들을 유혹에서 구해내고 진정한 독서생활로 인도해줄 지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독서지도란 단지 국어교사의 읽기 지도는 아니다. 독서생활은 어린이들의 일상생활에 실행되어야 하며 각 교과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하여 또는 教材와 관련시켜 좀더 넓고 깊게 알기위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각 교과의 교사들의 절대적인 협력과 사서교사의 독서지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들 각개의 능력과 기술 지식 습

관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이 독서에 흥미를 가지고 도서관을 애끼며 자유로이 이용하게 하며 그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지도를 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학교 당국이 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하루속히 각 국민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그곳이 학교교육의 中心인 동시에 어린이의 成長過程에 토대가 될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독서지도와 학교도서관 아동도서의 선택 및 독서지도의 실천등 몇 장으로 나누어 연구해 보았다.

世宗朝의 文獻考

도서관학과 김 현 기
지도교수 이 봉 순

文化는 圖書를 通하여 發展하였고 繼承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先人들의 精神生活와 文化의 程度를 把握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그 時代의 圖書에 對한 研究가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筆者는 本論文에서 우리나라 有史以來 가장 찬란한 時代였던 世宗朝(1418—1450)의 重要한 文獻을 綜合的으로 再考察하여 世宗朝의 文獻의 書誌(Bibliography)를 作成하므로써 世宗朝의 文化의 斷面을 提示할것을 目的하였다.

그리하여 本稿는 文獻編刊事業의 諸條件 및 世宗朝의 文獻誌의 二章으로 나누고 먼저 世宗朝의 文獻을 考察하기 爲한 基礎作業으로서 世宗大王의 文獻編刊事業에 隨伴되었던 條件을 叙述하였다. 첫째 李氏朝鮮 開國以來 世宗朝에 이르기까지의 文運의 隆盛 둘째 우리의 固有文字인

訓民正音의 創製 셋째 製紙事業 넷째 印刷事業 다섯째 集賢殿을 비롯한 編纂機關等에 對하여 攻究하므로써 우리民族이 가지고 있는 代表的인 古典의 出刊을 可能하게 한 時代의인 背景을 概觀하였다.

다음에는 世宗朝의 文獻中에서 世宗大王의 文獻編刊事業의 實證인 內容인 世宗 御製 御定本을 經史子集 分類法에 依하여 分類하고 各類에서는 年代順으로 配列하여 解題하였다. 이와 같이 整理한 結果 世宗大王의 文獻編刊事業의 大體를 밝혔다. 語學, 史學, 文學, 兵學, 醫學, 天文學, 歷學等 그當時 모든 學問의 程度를 推測할수 있게 되었다.

本稿에서는 世宗朝의 代表的인 文獻인 世宗 御製, 御定本の 書誌(Bibliography) 作成이 큰 部分을 차지하였음을 附記하였다.

